Culture



전북대학교박물관이 매주 목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영화 상영 '목요시네마 뮤즈'가 오는 14일부터 이어진다.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문화 소통공간

전북대박물관, 매주 목요일 명작 영화 무료 상영… 연 3500명 참여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조대연)이 매주 목 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영화 상영 '목요시네마 뮤즈'가 오는 14일부 터 이어진다.

8년째 시행되고 있는 '목요시네마 뮤즈'는 지난해 연 3,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받으며 문화를 통한 대학과 지역사 회 간 소통의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전북대박물관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우 리지역의 영화 촬영 장소 답사, 감독과의 대 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월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4일 '암살', 21일 '아나키스트', 28일 '동주'가 상영되는 것을 비롯해 4월 인도영화, 5월 성장영화 등 매달 특성에 맞는 주제의 명 작들이 지역민을 찾아간다.

조대연 전북대박물관장은 "목요시네마 뮤즈 가 8년째 이어지고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 으면서 대학과 지역의 소중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제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 고 많은 것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 소통공간이 되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영 문의는 전북대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chonbuk.ac.kr) 및 학예연구실 (063-270-408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 '지금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모든 순진한 영혼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기 를 권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욕실이 저절로 새하얗게 반짝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랫 감이 저 혼자 세탁, 다림질, 개기를 거쳐 옷장 안에 정돈되지 않으며, 냉장고가 벽에 뚫린 비밀 도관을 통해 채워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할 터다. 게다가 진정한 미법의 세계에서조차 도 집안일은 해야만 한다.

'지금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는 집 을 둘러싼 거의 모든 문제를 파헤친 책이다. 스위스 기자 모나 숄레가 썼다. 집이 삶에서 의미하는 것, 집이 가능하게 하는 것, 주거 환 경에 대한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집필을 시작했다. 집을 둘러보면서 사회가 당면한 문 제점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는다. "민주주의의 퇴보, 급락하는 혼인율과 상승하는 이혼율, 갑 질 문제, 사회 계층과 세대 간의 이중 격차, 근로노동 시간 논쟁, 가정 형태의 변이, 건축 방식의 문제 모두 집에서 시작되거나 관련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간'을 평평하 게 만들고 획일화한다. 컴퓨터 화면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나지 못한 날에는 하루가 더 짧 게 느껴진다. 혹여 누군가 내 시간을 도둑질 하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히 쉬지 못한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와도 예전처럼 더 이상 '다른 곳에',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에 머물 렀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인터넷은 집콕족 이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경험하는, 새로 운 활력을 선사하고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 는 '낯섦'의 느낌을 더욱 희귀하게 만든다"

"자기 집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면 대개는 즉 각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집을 소비할 권리밖에는 없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갇혀 있는 이중적 도덕 기준이 드러난다. 자 신에게 가혹하게 굴기, 효율성에 대한 요구, 삶의 대부분 영역에서 절제하고 희생하기. 그 와 동시에 오직 소비 영역에서만 모든 욕망을 즉각 충족시키고 위안과 위로를 발견하기. '나는 소중하니까요' 라는 슬로건은 아무런 이 견 없이 가장 성공한 마케팅으로 여겨지고 있 다. 그러나 퇴직자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시 위에서 이 구호를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분



노와 비난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반응을 숱하 게 쏟아 낼지도 모른다" 박명숙 옮김, 496쪽, 1만9000원, 부키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 "11년만의 복귀… 청문회 준비 잘할 것"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 양우(61)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뉴시 스와 통화에서 "아직 청 문회가 남아있으니 준비 잘하겠다"며 말을 아꼈 지만 밝은 분위기였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 보자는 노무현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성향으로 입각때마다 이름이 거론되어 왔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예술 경영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행시 23회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친후 문체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문화관광부 공보관,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뉴욕대시관 한국문화원장 문화관광부 문화 산업국장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을 지낸 후 2006년~2008년 제8대 문화관광

부 차관을 지냈다.

장관 내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CJ E&M 사 외이사 등을 지낸 그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 위원회 준비모임(이하 대책위)은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명확한 반 대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1일 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CJ E&M 사외이사 와 감사를 맡고있는 박양우 장관 내정자가 CJ E&M 인사라 국내 영화 산업 독과점 폐해 를 심화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미술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14 년 12월 광주비엔날레 재단 혁신일환으로 대 표이사로 선출됐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됐던 '세월오월'의 전시 철수 논란을 겪 은 이후였다. 박양우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미술행사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뉴시스

'말은 민족의 정신, 글은 민족의 생명'

부안군, 21일 무료영화 상영의 날 '말모이' 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1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 연장에서 영화 '말모이'를 무료로 상

특히 3월의 부안군민 무료영화 상영 의 날은 3 · 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 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의 계기로 삼고자 영화 '말모이'를 선정

영화 '말모이'는 엄유나 감독(택시 운전사 각본 등) 작품으로 우리말 사 용이 금지된 1940년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말모이 에 힘쓰는 조선어학회와 그 시대를 담은 영화이다.

말모이의 뜻은 사전을 뜻하는 순우 리말이자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만들 기 위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의 우리말을 모았던 비밀작전의 이름이 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어사전의 이름이기도 하다.

출연진으로는 유해진, 윤계상, 김홍파, 우현, 김태훈 등 연기파 배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도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며 글은 민족의 생 명이다. 일제가 창씨개명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아마도 조선을 영구히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 투하며 지켜낸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보면서 저절로 애국심과 나라사랑하는 마 음이 우러나리라 생각된다.

부안군 관계지는 "3 · 1운동의 위대한 정



신을 생각하면서 영화 '말모이'로 나라사 랑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귀한 시 간이 됐으면 한다"며 "부안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의 날은 매월 셋째 주 목요 일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군 민들이 오셔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 음과 탄식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 무료상영은 12세 이상 관람가 능하고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